

김다은 프로

이소미 프로

김아림 프로

문정민 프로

## 올해도 최고의 플레이어가 될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SBI 골프단 소속 프로들의 2022 시즌 선전을 기원합니다!

# SBI 사람에게 학창시절 추억을 물다



어렸을 적 학창 시절의 메인 이벤트는 소풍과 더불어 운동회였다.  
 우리 풍수지리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좌정룡, 우백호는 알았다.  
 점점 커가면서 운동회가 체육대회로 바뀌고 시절이 지나고  
 우리는 항상 목정이 터져라 외쳤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외치던  
 그때 그 청군, 백군들은 지금은 누군가의 학부모가 되어  
 또다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를 계속 외치고 있으리라.

SBI저축은행 MAGAZINE

# 희망저축

## Contents

2022 SPRING  
 Vol.33

**발행일** 2022년 4월 7일  
**발행인** 정진문, 임진구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팀  
**담 당** 김윤희(02-3416-401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기획·디자인** 디스토리



웹진 [sbiwebzine.co.kr](http://sbiwebzine.co.kr)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210(2022. 04. 06.)

<b>SBI 체험현장</b> SBI Makeover 잊고있던 나만의 '핏'을 찾아라	04	<b>New Face</b> 부동산금융3팀(B) 강재원 외 30명	24
<b>앱 사용 설명서</b> 설레는 봄, 새로운 시작을 돕는 필수 앱	08	<b>SBI 금융서비스</b> SBI 사이다뱅크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 출시	28
<b>SBI Answer</b> SBI인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묻습니다 그 시절, 추억의 물건을 알려주세요!	10	<b>SBI 희망뉴스</b> 2022년 1분기 주요소식	30
<b>세상읽기</b> 과거를 다시 만나는 시간	14	<b>열린편집실</b> 편집후기 독자 Quiz / MZ Quiz	34
<b>SBI 포커스</b> SBI저축은행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 개최	18		

# SBI Makeover 잊고있던 나만의 '핏'을 찾아라

직장생활과 육아에 지친 나.

어느새 '한솔씨' 보다는 '가빈이 엄마'로 불리는게 익숙하다.

거울 속 나를 보면 자신감만 잃어가는데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딸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단조롭다.

"이대론 안돼! 변신이 필요해.

난 여전히 괜찮아!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SBI Makeover팀'이 나섰다.

오늘의 주인공 '계정개발팀 김한솔 주임'.

딸아이와의 변신 과정을 통해 워킹맘의 옷차림 해법을 알아보자.

변신을 위한 헤어, 메이크업은 기본!



가빈이도 갈매머리에 머리띠로 포인트.



참여\_엄마: 김한솔 계정개발팀 / 딸: 김가빈 *Before*



설레는 나들이, 딸과의 스타일링 원해요

일과 가정에 모두 열심이지만 주말은 100% 우리 가족을 위해 '특별'하고 싶은 김한솔 주임. 집을 나설 때마다 딸 가빈이 코디가 고민이다. 19개월인 가빈이가 옷 투정은 없는 편이지만 더 예쁘게 입고 싶다. 게다가 둘이 잘 어울리면서도, 촌스러운 커플룩이 아니길 바란다. "가빈이 옷은 알록달록한 게 많아요. 공주 스타일의 치마랑 핑크 티셔츠가 많은 편이에요." 딸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내면서 감쪽한 느낌이 드는 스타일을 원하는데, '나는 뭘 입지? 어떻게 코디를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김한솔 주임. 계정개발팀 여신 시스템의 문제 해결은 순식간이고, 목소리 나는 엄마지만 이 부분은 쉽지 않다.



*After*

## Makeover Point

**헤어** >  
자연스러우면서 단정한  
포니테일 스타일

**상의** >  
팬츠와 **포인트 색상**을  
살리기 위해 상의는  
연노란색 왕리본 차이나넥 오간자  
블라우스를 입었다.

**하의** >  
2022년 **트렌드 컬러**인  
'비비드 그린'(Vivid Green)  
하이웨스트 와이드 팬츠. 하이 힐로  
팬츠의 길이감을 극대화 했다.



**변신은 과감한 색상으로**  
워킹맘과 딸아이 나들이 변신은 컬러로 시작.  
김한솔 주임과 가빈이는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컬러로 옷차림에 포인트를 줬다.

<  
연노랑색 왕리본 머리핀으로 엄마와  
**공동 아이템** 통일성을 주었다.



<  
가빈이는 진분홍 스커트에  
화이트 셔츠와 꽃무늬 니트를  
겹쳐 입었다.

오늘의 주인공 김한솔 주임은 “평소 시도조차 안 해 본 아이템인데 아이도 편안해하고, 저 역시 활동이 편할 거 같아요”라고 소감을 말한다. 자녀와 옷 스타일링 하려는 생각이 있어도 막상 고르고, 구입까지는 쉽지 않다.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싶었다는 김한솔 주임은 스타일 변신에 200% 만족감을 표했다. 스튜디오 곳곳을 뛰어다니며, 사진 찍는 재미에 방긋거리는 가빈이 때문에 ‘up’ 된 분위기가 촬영 내내 이어졌다.

평소 블랙이나 베이지 의상으로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SBI 워킹맘들이 이번 기회로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스타일 변신에 도전해 보길 바란다.

### 아이에게 맞추자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 특성상 편안한 옷차림의  
여벌 옷을 나들이 준비할 때가 많다.  
아니면 처음부터 ‘블링블링’을 포기할 때도 있는데,  
이때 엄마도 함께 과감한 아이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



<  
김한솔 주임과 가빈이 모두  
데님소재 점프수트로 매칭.  
**색상만 살짝 달라**한  
것이 포인트

<  
반다나 헤어밴드를  
이용해 귀엽고  
감쪽함을 표현했다.

>  
데님 점프수트로 **바지 밑을  
물어**해 더욱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



### ‘일잘라’로 보이는 스타일 센스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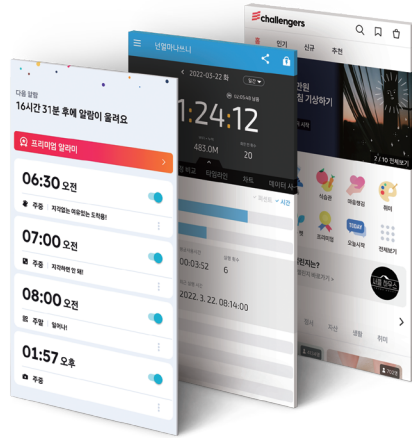
매일매일 같은 사무실을 가는 직장인. 그러다 보니 ‘회사원 코드’, ‘직장인 스타일’ 처럼 무채색의 정장만 떠올리게 된다. 매번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가지고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스럽다. 하지만 ‘일잘라’로 보이기 위한 원칙은 있다. “깔끔하면서도 멋을 부린 듯~ 안 부린 듯”

오피스룩은 절대 과하게 입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멋도 내려면 과하지 않은 옷에 액세서리나 머플러, 립 컬러에 신경을 써 포인트를 주는 게 좋다. 블랙이나 무채색 옷에 컬러풀한 머플러나 스카프, 비비드한 컬러의 신발, 화려한 목걸이나 귀걸이, 레드컬의 립 등 한 곳에만 포인트를 주면 좋다.



# 설레는 봄, 새로운 시작을 돕는 필수 앱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새 학기를 맞습니다.  
직장인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 봄이란 계절은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  
하루가 다르게 점점 따뜻해지고 꽃잎은 활날리고  
등달아 움츠렸던 마음도 기지개를 켭니다.  
혹시라도 봄기운에 취해 노곤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앱들을 모아 봤습니다.  
여기에 부지런한 SBI人を 위한  
목표 달성 앱도 빠질 수 없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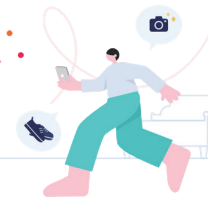


## 당신의 뇌까지 깔끔하게 깨우는 특별한 미션 알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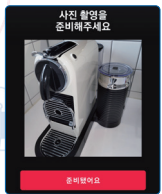
그냥 단순히 알람이 울리는 앱이 아닙니다. 확실한 활동을 통해 뇌까지 깨우는 알람 앱이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상 시간을 설정하고 미리 지정한 미션을 수행하면 알람이 해제되는 방식. 미션은 수학 문제를 풀거나 바로 일어나 스쿼드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하죠. 그중 가장 강력한 건 사진찍기 미션입니다. 미리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100% 완벽한 기상을 위해 집 앞 사진 찍기를 미션으로 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분들을 위해 강추합니다. 미래를 모닝을 실현하는 날이 다가올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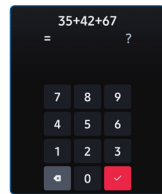
앱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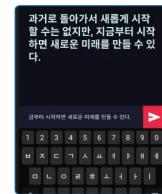
미션을 완료하지 않으면 알람이 계속 울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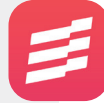
침대 밖으로 몸을 끌어내는 사진 미션



뇌를 확실히 깨워주는 수학미션



스스로를 자극하는 따라쓰기 미션



## 작심삼일은 그만,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 챌린저스

이루고 싶은 목표는 많지만 늘 실패하는 분들을 위한 앱도 있습니다. 이로부터 도전정신 뽐내는 챌린저스 가입자 100만 명을 자랑하는 앱이기도 하죠. 도전 영역은 다양합니다. 건강, 운동, 독서, 외국어 공부, 각종 취미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기, 매일 청소하기, 부모님께 전화 드리기 등 디테일을 자랑하죠.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그룹에 참가 신청을 한 뒤 원하는 만큼 돈을 걸고 빠짐없이 인증하면 돈은 물론 성공 리워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도 달성하고 리워드도 챙기고, 일석이조 효과를 얻는 챌린저스를 잘 활용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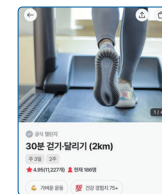
앱 다운로드



챌린지 별금은 100% 성공한 사람에겐 성공



운동, 식습관 생활패턴 교정까지 건강한 습관 만들기



평균 2주간의 챌린지를 다함께 시작



챌린지가 시작되면 사진을 찍어서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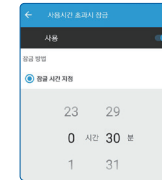


## 스마트폰은 이제 그만, 시간 관리를 돕는 년얼마나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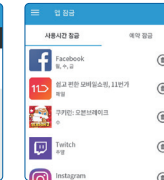
제목만 보면 무슨 기계부 같지만, 이 앱은 돈을 얼마만큼 쓰는지 묻는 용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얼마만큼 스마트폰에 쓰는지 확인하는 앱이죠. 한마디로 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취지!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루 중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할애하는 사람이라면 이 앱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만 미리 설정한 사용 시간을 오버한 뒤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은 Android 운영체제에서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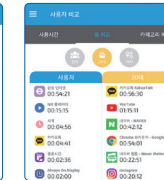
앱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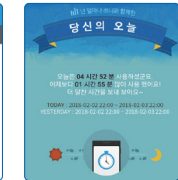
하루 목표 사용시간 초과 시 잠금



습관적으로 손이가는 앱 완벽 잠금



다른 사용자 사용패턴 비교



데일리 리포트에서 나의 사용습관 확인



## SBI인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묻습니다 그 시절, 추억의 물건을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새 학기가 되면 연필, 필통부터 시작해 책가방, 신발주머니까지 짝맞춤 해야 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머리가 조금 굵어진 이후에는 신상 디지털 기기를 장만에 한껏 자랑하고픈 욕심도 생겼죠.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도 친구들이 갖고 있으면 괜히 하나 장만하고 싶은 마음. 이런 기분은 새 학기든 그렇지 않든, 시기와 전혀 상관없이 늘 일어납니다. SBI 사람들은 어떠셨나요? 학창 시절 갖고 싶던 물건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당신의 추억이 궁금합니다.

### 추억할 거리가 많은 이유

어렸을 적 경험은 삶에 짙은 자국을 남깁니다.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나이에 따라 가슴에 새겨지는 음악의 강도가 달라지기 마련이죠. 특히 소년, 소녀에서 청년까지, 십 대 자락에 마주했던 소소한 경험들은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생생하게 우리 몸과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이야기하며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들의 별명을 천연덕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도 그 까닭입니다. 이들에게 아주 작은 사건도 커다란 웃음을 주는 스펙터클한 이야기로 변신하는데 이걸 아마도 치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기억 덕분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때 유행하던 노래가 흘러나오면 어느새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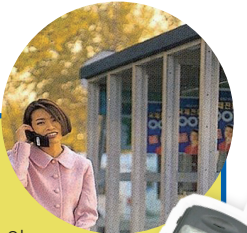
모습을 발견하고, 어렸을 적 아버지가 즐겼을 법한 다소 촌스러운 디자인의 맥주를 굳이 선택하는 것도 바로 추억이 가진 힘입니다.

사실 이런 경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불안한 시대 속, 어린 시절 기억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거창한 의미는 필요 없을 지도 몰라요. 오래전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에 젖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자랐고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어른들도 가끔은 놀이가 필요합니다. 학용품이든 장난감이든 옛 아이템을 떠올리며 감상에 젖는 것도 어른들에게 꿀처럼 달콤한 시간, 걱정 근심 털어낸 활기찬 마음으로 학창 시절 추억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 그때 그 시절, 시티폰을 아시나요

이미지: 나무위키



#### 신지용 채널개발팀

대부분의 대학생이 삐삐를 들고 다니던 1990년대 후반, 공중전화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곤 했습니다. 다음 아닌 삐삐 메시지 확인을 위해서였죠.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기 전 무선호출기 삐삐가 대박을 터트렸는데, 문제는 음성 메시지를 확인할 방법이 공중전화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전기를 닮은 무거운 휴대전화도 있었지만 가격이 후덜덜하여 대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한 아이템이었죠.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시티폰. 네, 맞습니다. ‘응답하라 1994’에서도 등장한 그 시티

폰 말입니다. 시티폰은 수신은 되지 않지만, 전화를 걸 수 있는 폰으로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에 혁신을 가져온 발명품이었습니다. 공중전화 근처가 아니면 통화 품질이 완전 최악! 그런데도 얼마나 이 시티폰이 갖고 싶었던지. 이어 출시된 PCS 휴대전화로 서비스가 오래가진 않았지만, 시티폰은 그때 그 시절 저의 꿀템이었습니다.



**우리시대 가장 핫한 교복, 노스페이스 패딩**

**민경모 심사기획팀**

학창 시절 엄청나게 애장하고 싶었던 물건을 꼽으려면 단연 노스페이스 패딩입니다.

등산 가는 것도 아닌데 등갓길에는 산악인 포스를 뽐내며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을 입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독, 이 브랜드 제품이 중, 고등학생들에게 어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맵시가 나는 디자인도 아니고 가격도 꽤 비쌌는데 말이죠.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일종의 교복과 같은 미친 존재감으로, 패딩을 입지 않으면 왠지 무리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희귀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당시 나를 효자(?)였던 저는 부모님께 옷을 사달라는 말은 차마 못 하고 몰래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토록 갖고 싶었던 노스페이스 패딩을 손에 넣고 말았죠. 아~ 그때 그 기분이란. 부모님께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제가 스스로 번 돈으로 옷을 사입으니 학교 가는 길이 굉장히 상쾌하더군요. 유행은 돌고 도는 법. 가끔 어린 친구들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오래전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노스페이스 패딩이야말로 학창 시절 소환 아이템인 셈입니다.



이미지: 노스페이스

**소년의 마음을 훔친 건담 변신 로봇**

**신동주 광주지점**

좀 유치하긴 하지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는 학창 시절 로망은 바로 건담 로봇.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로봇 아니고요, 8단 변신 로봇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알록달록 비행기에서 거대한 총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로봇으로 바뀌는 건담 장난감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이란! 진짜 너무 멋져 보여서 바로 손에 넣고 싶었죠.

애석하게도 산촌 골짜기에 살던 소년에게 이 로봇은 말 그대로 가질 수 없는 너. 간절한 마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전교 1등을 하면 로봇을 사달라고 부모님과 밀을 했습니다. 이후 밤낮없이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전교 1등을 했다고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토록 바라던 8단 변신 건담 로봇을 사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지금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고 싶지만, 와이프 눈치를 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크리스마스 선물로 플스 5를 바라는 건 너무 나간 거겠죠?



이미지: SOTSU-SUNRISE

**한때 전세계 게임 시장을 쥐락펴락 했던, 닌텐도 게임보이**

**박은성 HR지원팀**

초등학교 시절, 소위 잘 사는 집 아이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임보이가 기억나네요.

게임보이는 카트리지만 교체하면 여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최첨단 아이템이었습니다. 퍼즐 게임의 고전인 테트리스부터 슈퍼 마리오, 그리고 포켓몬까지. 정말 갖고 싶었지만 결국 가져 본 적은 없고요, 친구들에게 빌려 함께는 기억만 가득합니다. 친구 옆에서 "나 한 번만, 나 한 번만!" 하던 장면이 생생하네요. 지금 보면 조악한 그래픽에 조작 방법도 단순하지만 어린 제 눈에는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요즘 포켓몬 스티커가 유행하면서 포켓몬 빵을 구하기 위해 편의점 투어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는 포켓몬 하면 게임보이로 포켓몬 게임을 했던 게 먼저 떠오릅니다. 30대가 된 지금도 닌텐도 스위치를 내댈내산으로 재미있게 즐기고 있으니... 제 취향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알아보니 요즘도 중고장터를 통해 게임보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시길. 이거야말로 찐 레트로 아이템, 추억 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나무위키

**학용품에서 디지털기까지, 변화무쌍했던 나의 꿀템들**

**김유미 포항지점**

기억나는 꿀템은 두 가지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으로 장식한 수제 필통이 최애 아이템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학창 시절 보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클릭 몇 번만으로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잡지에 나온 사진을 오리는 게 유일무이한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오래된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친구들과 물물교환하기도 하고, 그 사진으로 꾸민 필통을 두고 '누가누가 잘 만들었냐'를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 다 추억~ 고등학교 때는 아이리버 MP3가 갖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갖고 있던 했지만, 용량이 적어 노래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였죠. 야차 시간, 핸드폰에 저장된 몇 곡 되지 않은 노래를 무한 반복 재생하며 대용량 MP3가 어찌나 부럽던지.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노래는 물론 영상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지만, 이어폰 하나 딸랑 들고 다니며 친한 친구에게 MP3를 동냥하던 그 시절도 때때로 그리웁니다. MP3 공유하던 친구들이,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이미지: tvn '응답하라1988' inver

## 과거를 다시 만나는 시간

혹시 '오픈런'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말 그대로 '열자마자 된다'라는 뜻인데요.

상점 앞 노숙도 불사한 몇몇 명품 브랜드의 인기를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쓰레빠런'의 시대!

제대로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뛰쳐나가야만 하는 최정상급 인기의 주인공은

바로 명품이 아닌 [포켓몬빵]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재출시한 ㈜SPC삼립 포켓몬빵은 재출시 한 달여 만에

역대급 인기를 누리는 '학창 시절 추억 소환'의 대표 아이콘입니다.

순간의 인기몰이인지, 추억 소환이라는 대유행의 시작일지 세상읽기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방영중인 포켓몬스터의 새로운 에피소드  
이미지: 투니버스

“포켓몬빵 안 팝니다.”(아니, 사실은 못 팔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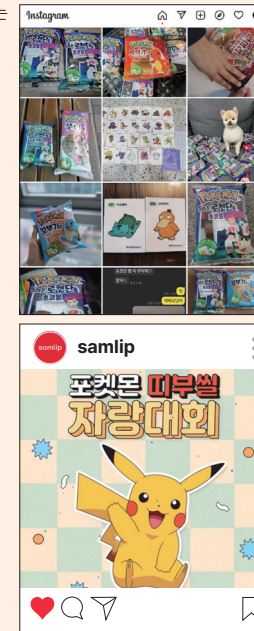
지역카페, sns, 편의점 어플의 재고 현황을 통해, “어디? GS25?!, “홀플러스?”라는 소문이 뜨기 시작하면, 즉시 품절이 된다는 전설의 포켓몬빵. 포켓몬? 내가 알고 있는 그 포켓몬? 예전에 나왔던 그 빵을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40대가 훌쩍 넘은 나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켓몬 만화는 현재도 방영 중이며, 2022년 3월 30일 새 에피소드 방영도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동일한 시대에서 누군가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포켓몬빵의 인기에는 여러 가지 절묘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30대라면 본인이 어린 시절 먹었던(혹은 못 먹었던) 포켓몬빵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서, 어린 자녀를 둔 40대 부모는 아이들 등쌀에 밀려 쓰레빠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으로 간다면 손자손녀에게 주는 선물용으로 필요합니다.



SPC 삼립 포켓몬빵

sns 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포켓몬빵', '띠부쌀' 게시물



출시 일주일 만에 150만 개가 팔렸다는 대유행의 시작은 '추억 소환'입니다. 그러나 추억 소환이 전 세대를 관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게 봐도 30대 전후로 한정된 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켓몬빵의 유행을, 어린 시절 돈이 없어 마음껏 사 먹지 못한 '어른이'들이 이제는 '이 정도는...' 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포켓몬빵 외에도 수많은 추억 소환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케팅적으로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추억이 있어야 하고(40대 중반 이후가 소외되는 지점), 이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제품이 있어야 하며(포켓몬빵), 띠부띠부쌀(떼었다 붙였다 스티커 모으기)라는 어마어마한 동력이 더해진 다음, 인스타그램 인증샷과 해시태그의 부스터가 마지막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유사한 추억 소환 아이템이면서도 소외되고 있는 CU 미니바독초콜릿의 저조한 판매가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추억을 소환하는 데에도 나이 제한이 있고, 시대의 대유행에도 입장 제한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의 유행은 그들만의 축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억 소환'이라는 문화에 이미 세대 간 온도 차가 있으며,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보입니다. 쓰레빠를 신고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의지와 인스타그램 인증이 필수인 세대, 159종이나 되는 띠부쌀의 종류도 외울 수 있는 세대에게 허락된 유행이지요.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도, 퇴근길에 편의점을 살며시 둘러 보세요. 어쩌면 지금 막 입고된 따끈따끈한 포켓몬빵이 '유'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깐요. (\*유는 최고인기의 띠부띠부쌀이고 높은 가격에 중고거래도 가능하다.)



CU 미니바독초콜릿



“  
 학창시절 공부하기도 바쁜데,  
 몰래 훑쳐보던 드라마.  
 그땐 왜 그리 다음화가 보고 싶었던지...  
 학창시절 내가 즐겨보던 옛날드라마.  
 요새 애들도 좋아하네!  
 ”

**[옛드]의 귀환, 다시 돌아온 대장금**

추억 소환은 즐겨 먹던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즐겨 보던 드라마와 영상을 다시 찾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참으로 신기한 작용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귀신같이 찾아서 알려주는가 하면 전혀 관심 없던 주제마저 최고의 관심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내 관심사를 거슬러 어느새 10년 전 드라마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MBC와 SBS는 몇 년 전부터 자사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던 옛날 드라마의 요약 편을 콘텐츠로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작비 삭감과 거리 두기 운영으로 발생한 코로나 기획의 일환으로, 이를 반가워하는 이는 기대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사랑과 전쟁, 김수현 작가표 드라마,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의 대시작을 알린 [아내의 유혹]까지. 최근에는 MBC에서 2003년 제작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을 업로드하며 유튜브 구독자 3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옛드 다시보기의 유행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다시 만난 과거가 반가운 옛드가 방영하던 시대의 세대뿐 아니라 옛드는 요즘 젊은세대도 즐겨봅니다. 예전 드라마를 요즘 시대의 가치로 재해석해서 다시 보는, WATCH가 아닌 REVIEW의 재미를 MZ세대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OTT 서비스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옛날 드라마들

이미지: KBS, MBC, SBS



최근 디지털 리마스터링 되어 재개봉한 영화들  
 이미지: NAVER 영화

그 시절에는 당연했을 가치관이나 문화가 지금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얼마나 구태의연하거나 진보적인지 새롭게 평가하는 재미가 아주 쓸쓸한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옛드 콘텐츠에는 항상 따라붙은 파생 콘텐츠가 있는데, 바로 옛드 콘텐츠의 댓글만 모아보는 리뷰들입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대장금의 주인공 장금이의 삶은 어떤가요? 그 시절에 우리가 보았던 장금이와 2022년에 다시 보는 장금이는 무척 다릅니다. 장금이의 MBTI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장금이에게 존재했던 엄청난 스토리텔링 능력과 면접 프리패스라는 외모 또한 인기의 한 몫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점이 옛드의 인기가 포켓몬빵과 결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포켓몬빵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자기만족+수집 성격을 띤 유행이라면, 옛드의 유행은 재미있었던 옛날 드라마를 다시 보며 추억을 회상하는 1차적 재미와 더불어, 생각을 공유하고 인물을 재해석하는 수많은 댓글 드립의 향연을 누리는 요소가 결합된 것입니다. 옛드를 보게된 시작이 다르고 다른 재미를 느끼더라도 같은 옛드를 본 사람들은 세대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너두, 이 드라마 알아?”

OTT 서비스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2000년에 제작 발표된 홍콩 영화 [화양연화]를 업로드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리마스터링 재개봉 열풍이라 할 만한 이슈 물입니다. 포켓몬빵과 함께했던 10대 청소년들이 자라, 성인이 되어 봤던 아련한 홍콩 영화의 추억. 이제는 극장이 아니라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지만, 추억 소환이라는 주제 안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추억 소환이라고 해도 조금씩 다른 양상과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대 간 단절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을 함께한 추억을 되살려서 보고 즐기고 누린다는 점은 분명 새로운 문화입니다. 우리 곁을 스쳐 간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중에서 선택된 문화 혹은 아이템이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죠.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세대에서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과거의 추억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저 ‘추억을 소환해서 다시 불러보는 것’이라면 그 시절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라면, [화양연화]와 같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는 것이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TEAM MATCH

팀일수록  
매순간이  
치열하다



SBI저축은행이 국내 최초로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을 개최, 골프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벤트 대회로, 14개 구단의 인기 선수가 대거 참여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특히 소외아동 후원을 위한 대회 이벤트 '희망저축 버디'도 진행돼 나눔의 소중함을 알리는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일정 : 2022. 03. 24(목) ~ 2022. 03. 27(일) • 장소 : 여수 디오션 CC



SBI저축은행 이소미



문정민 이가영



김지현 이가영

## SBI저축은행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 치열했던 팀매치의 열기, 2022 KLPGA의 시작을 알리다!

### KLPGA 최초 구단 대항전

SBI저축은행은 지난 3월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디오션 CC에서 국내 최초 구단 대항전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메디힐, 큐캐피탈파트너스, 대방건설, MG새마을금고 등 KLPGA 14개 구단이 참가, 각 구단에서 2명의 선수가 1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진행했다. 특히 SBI저축은행 소속 김다운, 문정민 선수를 비롯해 김지현, 이가영, 이다연 등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골프 팬과 일반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다.

3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된 예선은 포섬스트로크, 26일 본선 8강-4강전은 포섬매치플레이, 27일 결승전은 포볼매치플레이로 치러졌다. 정규시즌을 앞두고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벤트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부담감을 내려놓으면서도, 구단을 대표해 경기에 임한다는 책임감으로 함께 팀을 이룬 선수와 서로 의지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강한 티샷을 날리고 있는  
SBI저축은행 골프단 문정민 선수



대회가 개최된 여수 디오션 CC



### 새로운 형태의 경기 방식 '성공적'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골프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MZ세대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여러 방송사에서도 골프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대중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속 SBI저축은행이 개최한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은 구단 대항전이라는 경기 방식 도입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경기 방식을 도입해 기존 골프 팬뿐만 아니라 골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도 쉽고 재미있게 골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은 많은 관심과 응원, 참가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메디힐 이다연-안지현 '우승'

이번 대회에서는 14개 구단 선수들이 뜨거운 우승 경쟁을 펼친 끝에 메디힐 이다연-안지현 선수가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며, 상금 3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로써 메디힐은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 초대 우승 구단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SBI저축은행 골프단 김다운, 문정민 선수



결승전에서 메디힐 이다연-안지현 선수는 큐캐피탈파트너스 박재윤-황정미 선수를 만나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했다. 11번 홀까지 3홀 차 리드를 이어가던 메디힐 이다연-안지현 선수는 12번 홀에서 격차를 4홀까지 벌렸고, 큐캐피탈파트너스 박재윤-황정미 선수는 13번 홀에서 1홀을 만회했으나, 결국 15번 홀에서 4홀 차로 앞선 메디힐이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와 함께 3, 4위 결정전에서는 대방건설 오지현-현세린 선수와 MG새마을금고 광보미-김리안 선수가 마지막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부를 이뤄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메디힐 소속 이다연 선수는 "새로운 포맷의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하게 돼 너무 기쁘다"라며 "나홀 동안 같은 소속 선수들과 서로 의지하며 즐길 수 있었다.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되어 곧 시작될 정규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도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산건설·SBI저축은행 CUP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을 차지한 메디힐 안지현-이다연 선수

## 소외아동 후원을 위한 대회 이벤트 희망저축 버디

### 소외아동 후원금 총 1천만 원 기부

SBI저축은행은 이번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을 통해 소외아동 후원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체리티(Charity) 이벤트인 '희망저축 버디'를 진행했다.

골프 팬과 대중들에게 나눔의 소중함을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된 '희망저축 버디' 이벤트는 경기중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대회 종료 후 소외아동을 후원하는 이벤트로, 이번 대회에서는 총 1천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었다.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는 1천만 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단체인 여수 삼혜원에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 SBI골프단의 새 얼굴 문정민 프로를 소개합니다



### PROFILE

2002년생 / 신장 171cm  
비거리 268yd  
2021년 4월 KLPGA 입회  
'21 드림투어 상금순위 19위  
'20 스포츠조선배 아마추어 대회 4위



문정민 프로는 2021년 KLPGA 입회 이후 점프투어와 드림투어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프로 입문 6개월 만에 1부 시드를 획득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인'이다. 2022시즌 SBI골프단에 합류하면서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을 해나갈 문정민 프로를 만나보자.

#### Q. 2022시즌 SBI골프단에 합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먼저, 제가 2부투어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SBI저축은행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골프는 성실함과 집중력 등 선수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든든한 후원사의 지원이 있어야 더 큰 도전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SBI골프단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 Q. SBI저축은행이 개최한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에 참가한 소감은?

SBI골프단 소속 선수로 SBI저축은행이 주최한 이번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을 정말 잘해내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정규투어를 앞두고 선배님들과 함께 뛰며 저의 샷감을 점검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 Q. 지난해 KLPGA 입회 후 드림투어 진출 4번째 대회 만에 프로무대 첫 우승을 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초고속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시절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할 당시, 부모님께서 먼저 골프 입문을 권유하셨어요. 저 또한 박세리 선수의 US오픈 맨발 투혼 영상을 보고 감동받은 것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박세리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저도 매 경기 그런 각오로 임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제가 동년배 친구들보다 1년 늦게 프로턴을 하게 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SBI저축은행이라는 든든한 후원사까지 있으니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일만 남았네요.

#### Q. 골프선수로서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아무래도 큰 키(171cm)에서 나오는 장타(평균 270야드)가 저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파워풀한 스윙과 장타를 저의 장점이라고 평가해 주시는데요. 저 역시 비거리에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아요. 1부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장타뿐만

아니라 쇼트게임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훈련을 통해 쇼트게임 연습에 집중했어요.

#### Q. 혹시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의 또 다른 장점을 하나 더 꼽으려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평소 생활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경기에 임할 때도 자신감을 갖고 해요.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역시, 일단 잘 안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맞춰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쓰면 더 실수가 잦아지거든요. 그럴 땐, 잘 해냈을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처럼만 하면, 잘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극복합니다.

#### Q. 2022시즌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올해는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컷 통과와 1승을 하며 신인왕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 신인인 저에게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에요. SBI저축은행 임직원분들을 비롯해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철저한 자기관리와 그에 따른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 SBI의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SBI저축은행에 향긋한 봄기운을 전하는 새로운 인재들이 찾아왔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직장에 등지를 마려한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31명의 SBI인들이 전하는 학창 시절 추억과 앞으로의 바람을 함께 들어볼까요?

1. 학창시절, 당신의 별명은?
2. 당신을 추억에 젖게 하는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3. SBI저축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바램은?

## 2022 공채 신입사원



**강재원**  
부동산금융3팀(B)



- 1 수업시간에 잠만 자서 '잠만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 2 저의 대학생활이 옷ით 담겨 있어 더 소중한 졸업사진.
- 3 부동산 금융 전문가. 많은 동료, 선배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원이 되는 게 꿈입니다.

**김문희**  
채널개발팀



- 1 동명이인 배우 나문희로 인해 호박고구마라고 불렸어요.
- 2 물건은 아니지만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싸이월드 감성 메들리.
- 3 SBI저축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후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  
리테일영업4팀



- 1 이름이 비슷해 스타크래프트의 '성근 콜로니'라고 불리곤 했어요.
- 2 어릴 적 치열하게 '띠부띠부씰'을 모았던 기억! 요즘 더 생각합니다.
- 3 타인에게 인정받는 멋진 직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환**  
IB2팀(B)



- 1 순하고 언제나 여유로워 보인다고 해서 '보노보노'
- 2 볼펜, 글 쓰는 걸 좋아해 펜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 3 적극적이고 활발한 투자로, 업계 내 소문난 IB 하우스로 거듭나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김윤희**  
홍보팀



- 1 위너더푸의 '피글렛'. 제가 피글렛을 닮았대요.
- 2 MP3 플레이어. 어릴 때 즐겨 사용하던 최고의 전자기기.
- 3 모두에게 사랑받고 트렌디한 SBI저축은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운**  
부동산어신심사팀



- 1 케빈. 국어를 못하다 보니 친구들이 제 외국 이름을 부르더군요.
- 2 나이키 축구화. 학창시절 축구하던 순간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 3 대외적으로 SBI저축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노휘성**  
IB1팀(A)



- 1 이름에서 딱 휘파람! 이 밖에도 휘바, 휘바, 안되나요(휘성 노래) 등
- 2 다시 돌아온, 오래전 추억이 가득 담긴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씰.
- 3 동료들과 소통하며 저의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며 조금씩 발전해나겠습니다.

**류인상**  
여신지원팀



- 1 어렸을 적, 얼굴이 잘 빨개진다고 해서 '피카츄'
- 2 손때 묻은 전공 서적. 아... 대학 시절이 벌써 그리네요.
- 3 SBI저축은행의 키맨. 지금은 손이 많이 가는 신입이지만 미래에는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문준석**  
IB3팀(B)



- 1 성이 문씨다 보니 '문어', 한때는 독특한 행동을 해서 '문돌이'
- 2 닌텐도DS, 포켓몬부터 슈퍼마리오 등 그때 그 시절 최고 아이템.
- 3 이루고 싶은 건 많지만 일단 건강하게 야 할 수 있으니 누구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민경모**  
심사기획팀



- 1 연예인 '민경훈'과 이름이 비슷해서 그냥 '민경훈'
- 2 포켓몬빵이 인기죠? 친구들과 스티커 교환하던 추억이요.
- 3 더 많은 사람들이 SBI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나형**  
정보보호팀



- 1 그림, 악기 같이 손으로 하는 건 뭐든 잘한다 해서 붙은 '금손'
- 2 요즘 유행하는 포켓몬빵. 학창시절 매점 단골 아이템이었죠.
- 3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SBI저축은행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송영주**  
IB3팀(A)



- 1 학창시절 초록색 애착 담요가 있어서 '초록이'라 불리곤 했어요.
- 2 포스트잇. 선생님 몰래 포스트잇으로 쪽지를 주고받았거든요.
- 3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열심히 배우 꼭 필요한 팀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송하림**  
리테일매케팅팀



- 1 흰 우유입니다. 흰 우유를 잘 먹는 흔치 않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 2 초등학교 내내 배웠던 가야금. 제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 3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신재민**  
리테일영업1팀



- 1 당나귀 + 위 = 당나쥐. 제가 당나귀랑 쥐를 닮았대요.
- 2 미키마우스 MP3.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 3 SBI저축은행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어요.

**오주한**  
부동산금융2팀(A)



- 1 당나귀 + 위 = 당나쥐. 제가 당나귀랑 쥐를 닮았대요.
- 2 제 역사인 일기장. 지금도 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3 가장 어렵게 '있을' 땀 몰라도 없으면 티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장윤석**  
재무경리팀



- 1 미스터 첼시, 축구 클럽 '첼시'를 서포팅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 2 죽도와 호구세트, 대학시절 검도 동아리의 추억이 그림습니다.
- 3 프로패셔널한 재무경리 팀원. 재무경리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전희연**  
부동산금융3팀(B)



- 1 키가 작은 데다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유로 '전초담'
- 2 초등학교부터 현재까지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담긴 편지함.
- 3 조금 부족하더라도 항상 노력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진유림**  
IB2팀(B)



- 1 진리면이요. 성이 진씨라는 너무도 단순한 이유로 '진초담'
- 2 대학 때 짝은 핸드폰 엽서들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 3 업계 1등 저축은행을 지켜나가는데 힘이 될게요 할 수 있겠죠?

**이다은**  
재무경리팀



- 1 배우 손예진 성대모사를 했더니 '문계잔'이란 별명!
- 2 오래전 낙타에게 먹이를 주다가 날아가 버린 모자가 생각합니다.
- 3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1등 저축은행 직원이란 타이틀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이유비**  
리테일콜렉션을팀



- 1 어감이 좋고 귀여운 느낌으로 이름보다 더 많이 불린 별명 '순복이'
- 2 포도 알범. 짧은 메모도 함께 있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 3 학력과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SBI의 일원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한민경**  
소호영업3팀



- 1 양갱과 원가 비슷한 느낌의 '민갱이'. 친구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 2 여행 캐리어. 코로나 이전, 즐겁게 여행 다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 3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인**  
부동산금융3팀(A)



- 1 제 이름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Adult. 그래서 별명도 'Adult'
- 2 예전에 제가 쓰던 노트. 노트만 봐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 3 팀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최병학**  
리테일영업3팀



- 1 병학이를 빨리 발음하다 보면 병아리가 되어서 '병아리'
- 2 어렸을 적 바둑 프로라는 꿈을 갖게 해줬던 '바둑판'
- 3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황재용**  
계정개발팀



- 1 황씨에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서 그런지 '황비홍'
- 2 축구공. 축구공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 3 그냥 주임이 아닌 저희팀 홍석춘 주임님처럼 모두에게 사랑받는 주임이 되겠습니다.

2022. 1Q  
경력직 수시

**박지훈**  
정보보호팀



- 1 항상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녀서 '타조알'
- 2 차와 커피를 즐기는 1인오리 오래된 텀블러가 제일 소중한합니다.
- 3 업계 1위 SBI저축은행처럼 담당직무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도인**  
채널개발팀



- 1 이름에 '도가' 들어가서인지 친구들이 '윤도도'라고 부르곤 했어요.
- 2 학창시절 스티커를 수집하며 빵 먹던 즐거움을 주던 '포켓몬 스티커'
- 3 쉽고 편리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2022  
텔러공채

**나소연**  
전략기획팀



- 1 마치 개미가 말하는 것처럼 조용하다고 해서 '개미'
- 2 야구 글러브. 코로나가 좀 진전되면 친구들과 캐치볼 하고 싶네요.
- 3 열심히 일하고 배워서 성장할게요. SBI저축은행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박하은**  
기업여신심사팀



- 1 물먹는 하마? 하루 종일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 2 정들었던 교복을 보고 있으면 행복했던 학창시절이 떠오릅니다.
- 3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SBI저축은행을 알리고 싶어요~!

**신용호**  
부동산여신심사팀



- 1 힘이 좋고 빠가 튼튼하다고 해서 붙은 '용기리통뼈'
- 2 처음 장만했던 노트북. 오류 해결을 위해 혼자 광공대던 기억이~
- 3 SBI저축은행의 우량한 자산 확보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준**  
부동산금융3팀(B)



- 1 굽슬머리 덕에 머리가 파인애플 같다고 하여 '파인애플'
- 2 줄이어폰을 보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한쪽씩 이어폰을 나눠끼고 노래를 들던 추억이 생각합니다.
- 3 빠르게 적응하고 습득해 SBI저축은행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조창현**  
기업금융1팀(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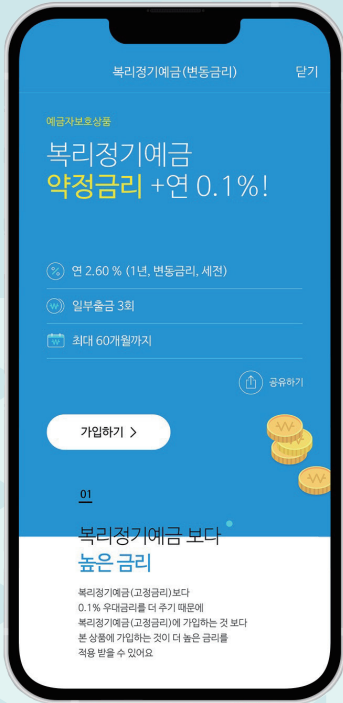


- 1 제 이름이 조창유와 어감이 비슷해서 '조창유'
- 2 사진. 원래 사진 찍는 걸 싫어했지만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 3 1등 저축은행 입사한 만큼 업계에서 비슷한 연차 직원 중 가장 잘 일하는 1등 직원이 되겠습니다.

# 사이디다 BANK

SBI 저축은행

##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 출시



제로금리 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접어들면서 돈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최근 주식 투자나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쏟았던 시중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정기 예적금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안전한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SBI저축은행 '사이디뱅크'가 기존 복리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

# 연 2.7%

#### 사이디뱅크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 상품 개요

- 가입대상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3년 ~ 5년 (월 단위로 선택가능)
- 금리유형 변동금리(12개월 기준)
- 적용금리 2.7% (기본이율 2.6% + 우대금리 0.1%)  
 ※ 2022년 3월 30일 기준  
 ※ 우대금리는 가입시점으로부터 12개월 경과 시부터 적용
- 기 타 12개월 이후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 100% 제공

#### 고객 자산, 든든하게 지켜줄 사이디뱅크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

SBI저축은행 '사이디뱅크'는 최근 연2.7%의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더한 새로운 금융상품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을 출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월 연 1%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0.25% 인상한 이후 각 금융사들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디뱅크 역시 기존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인 것! 이번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은 일반 복리정기예금(고정금리) 상품보다 0.1%p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12개월마다 복리정기예금(고정금리) 금리에 우대금리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연장에 대한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와 혜택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한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 상품을 알아보자.

**연 0.1% 우대금리!**  
**중도해지해도 약정금리**  
**100% 보장**



사이디뱅크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은 월복리의 이자지급을 통해 높은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치식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최소 100만 원부터 제한없이 원하는 만큼 예치할 수 있어 목돈 굴리기에 좋은 상품이다. 기존의 복리정기예금 12개월 고시이율에 연 0.1% 우대금리 제공으로 더 큰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추가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우대금리를 포함한 약정금리의 100%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묶이는 정기예금 상품 가입을 꺼리는 고객도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하면 긴급 출금,**  
**만기 자동연장 서비스도 OK**



사이디뱅크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은 예금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높이는데 집중한 상품 인만큼, 긴급 출금 서비스와 만기 자동연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기예금 상품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은 최저 예금잔액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할 필요없이 필요한 자금을 긴급 출금할 수 있다. 긴급 출금 서비스는 가입 후 1개월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1일1회 한정)

또한, 만기 시 재예치에 대한 고객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자동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기일에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를 동일조건으로 최대 1회까지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 시 자동해지나 직접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의 사랑을 받은 SBI저축은행 '사이디뱅크'는 이번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 출시와 함께 앞으로도 고객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SBI저축은행, 기업PR캠페인  
[SBI가 SBI를 찾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광고제  
‘스파이크스 아시아’ 2관왕 수상



SBI저축은행 기업PR캠페인 [SBI가 SBI를 찾습니다]가 세계적인 권위의 광고제인 '2022 스파이크스 아시아(Spikes Asia)'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소셜 & 인플루언서(Social & Influencer)부문 실버(Silver)와 브론즈(Bronze)를 동시에 수상한 것. 스파이크스 아시아는 1986년 '스파이크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09년부터 칸 국제광고제 조직위가 운영을 맡은 세계적 권위의 광고제다.

[SBI가 SBI를 찾습니다]는 SBI저축은행의 이니셜을 가진 가족, 친구, 가게, 반려동물 등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소개해 대중과 소통하는 캠페인이다.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창의적인 기획, 대중과 함께 지속적으로 호흡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진정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21년 에피 어워드 파이널리스트 수상에 이어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시상식에서 국내 금융사가 수상하는 것은 2013년도 이후 약 10년만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SBI저축은행, 중금리 광고캠페인  
‘선택(S) 받고(B) 있다(I)’  
세 번째 시리즈 [세리머니]편 론칭



SBI저축은행이 중금리 상품을 알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고캠페인 '선택(S) 받고(B) 있다(I)'의 세 번째 시리즈 [세리머니] 편을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시상식]의 후속편으로, 사자 캐릭터가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를 들고 전국을 돌며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3년 연속 중금리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세리머니] 편은 기존 BGM을 보다 경쾌하고 웅장한 응원곡으로 편곡해, 중금리 1등 저축은행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경찰과의 하이파이브, 시골 노인들의 환호, 어부들의 응원, 직장인들의 열광적인 반응 등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사자 캐릭터를 다각도로 연출해 서민금융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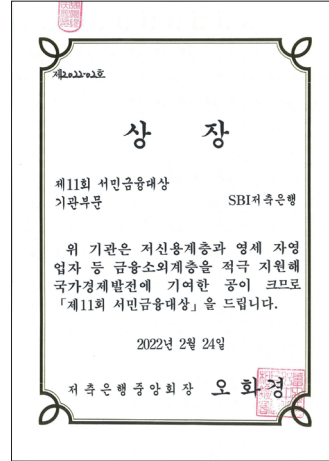
이 밖에도 종로 낙원상가, 을지로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촬영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 SBI저축은행, [서민금융대상] 저축은행중앙회장상 수상

SBI저축은행이 제11회 [서민금융대상] 기관 부문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SBI저축은행은 저신용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 확대, 중금리 공급 강화 등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민금융대상]은 금융소외계층 지원, 소비자 중심 경영 등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금융사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다.



## SBI저축은행,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7년 연속 브랜드가치 1위 선정

SBI저축은행이 브랜드스타이 조사 평가한 '2022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저축은행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브랜드가치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브랜드스타는 인지, 호감, 신뢰, 만족, 구매 의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SBI저축은행은 '사이다뱅크'를 중심으로 고객의 편의와 혜택에 집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대표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직원, 여의도지점 이덕비 지점원 선정

SBI저축은행 여의도지점 이덕비 지점원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직원에게 선정되었다. 이덕비 지점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3천5백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고령의 고객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고객에게 범죄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여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덕비 지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 SBI저축은행, 강원·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5천만 원 전달

SBI저축은행이 강원,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을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 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 강릉, 동해와 경북 울진 지역을 복구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2019년에도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SBI저축은행 매거진 [희망저축]은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긋 세웁니다.  
홍보팀 김윤희(unicandoit@sbisb.co.kr)에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

가족, 동료, 연인, 친구, 고객 등과 함께 참여하는 Makeover에 도전해 보세요. 체험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드립니다.

## [SBI Answer] 설문 참여

매호 키워드를 하나 선정하여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희망저축 설문] 이벤트 참여

웹진(http://sbiwebzine.co.kr)에 접속하여 '설문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으로 더욱 알찬 희망저축을 만들겠습니다.

## 편집후기

### “가질 수 없는 너”

김윤희 | 홍보팀

2년 6개월 만에 싸이월드가 부활했습니다. 아직 모든 기능이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3040세대를 넘어 20대를 또한 열광하고 있습니다. 잊고있었던 일촌 목록을 보며 뜻밖의 흑역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듯 요새 단톡방의 뜨거운 감자는 싸이월드를 비롯한 학창시절의 '추억'입니다.

'SBI인에게 학창시절 추억을 묻다'가 주제인 이번 웹진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나름의 답변을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잠깐이나마 그때 그 시절의 추억에 젖어들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바퀴달린 운동화 '힐리스'가 참 갖고 싶었습니다. 세브의 '와썹' 뮤직비디오에 나온 그 신발이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주지 않으셨고 방 안에서 한 시간을 내리 울었네요. 그 때 저는 어른이 되면 갖고 싶은 걸 다 사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량이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다고 하여 행복한 삶이 아니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추억'이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이번 웹진 분호를 통해 잠시 동안 과거의 추억을 느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학창시절의 추억거리들이 이토록 인기를 끄는 이유는 특별한 고민없이 지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서겠죠? 그동안 고생 많았던 '나'를 위로하고 설레는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하며 우리 SBI인들, 2022년도 함께 힘내봅시다!



## 독자 Quiz

이번호 [희망저축] 내용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희망저축]을 읽어보고 아래 물음의 답안을 작성해 보세요.

Q1.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가 기존 복리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변동금리) 상품을 출시했다.

Q2. 신지용 팀장(채널개발팀)의 그때 그 시절 '꿀템'으로 공중전화 근처에서 걸 수 만 있고 수신은 되지 않는 폰은?

- ① PCS    ② 시티폰    ③ 셀룰러폰    ④ 컨트리폰

Q3. SBI저축은행이 'KLPGA 골프구단 챔피언십'을 개최, 골프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SBI골프단에서는 김다는 프로와 SBI골프단의 새 얼굴  프로가 출전했다.

## MZ 용어 Quiz

문제

유행어 **아이스아메리카노 김경애**요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힌트

김경애는 대한민국의 컬링 국가대표 선수이다



지난 호 다른 그림찾기 정답

- 독자 Quiz와 MZ 용어 Quiz 정답을 6월 24일(금)까지 홍보팀 김윤희(unicandoit@sbisb.co.kr)에게 보내 주세요.
-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